

이 장(章)을 끝으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8:22-10:52)을 마무리 짓는다. 예수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 마가복음에 ‘길에서’라는 표현이 특히 8-10 장에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가 도(道)—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길에서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묻는다(8:27). 예수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한다(9:33-34). 예수는 길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해 가르친다(10:32-34). 그런데 제자들은 길 되신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오직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바디매오만 ‘길에서’ 예수를 따른다.

### 예수는 우리들 삶의 본보기(Role Model)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선생으로서 예외가 아닌 모범적 삶을 선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기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을 하나 살펴보자. 인자의 온 것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주려 함이니라(10:45). 대부분 우리말 성경은 “인자는” (표준 새번역) 혹은 “인자가 온 것은”(개역)이라 번역함으로써 예수와 그의 신학을 예외적으로 다루는데, 오히려 마가복음은 예수의 신학을 복음의 모범(ἀρχή)으로 이해한다. ‘나는’이 아니라, ‘나도’(I also) 혹은 ‘나조차도’(Even I)라고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공동번역은 “사람의 아들도”라고 읽는다. 야보고와 요한의 영똥한 요구로 시작된 예수의 가르침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남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니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한다. 예수도 그렇게 사셨으니, 그를 본받으라는 뜻이다. 예수는 공생애 처음부터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하느님의 권위에 따른 삶을 택한다(1:27). 그 대전제에 따라 예수도 예외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산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값/값”(λύτρον ἀντι πολλῶν)이 무엇일까? 신약성서에서는 여기에만(막 10:45 // 마 20:28) 쓰였기 때문에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구약성서에서는 무엇을 사거나 보상할 목적으로 치르는 값을 의미했는데, 피해 보상금(출 21:30), 토지 무르기(레위기 25 장), 혹은 몸 값(민수기 3 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파생하는 신학적 문제는 보상금을 누구에게 지불하는가 하는 점이다. 하느님인가? (하느님이 왜 그것을 요구하나?) 혹은 많은 사람을 볼모로 쥐고 있는 어떤 채권자나 사탄과 같은 또 다른 권세를 전제하는가? (어떤 경우든 하느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되기 보다는 신학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마가복음에는 그 값을 누구에게 주는지 또 그 값을 통해 벗어나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소위 ‘대속의 교리’로 본 이해가 예수의 3 번에 걸친 죽음 예언(8:31; 9:31; 10:33-34)과 이어지는 예수의 수난사(14-15 장)에 전혀 포함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한 구원, 곧 대속의 죽음이라는 교리는 마가복음의 핵심도 관심사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속물(ransom)” 혹은 “몸값”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값/값”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과 맞바꿀만한 값,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그 가치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추구해야만 했던—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현 지배체제에서는 힘과 권력을 말하고,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돈과 재물을 뜻한다. 오늘날처럼 힘과 권력과 재물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회 제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에 상응하는 혹은 더 나은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복음’(1:14-15)이고, ‘하느님의 믿음’(11:22)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대신하는 값/값은 예수가 주창한 ‘하느님 나라’ 곧 더불어 사는 삶이다. 돈과 재물, 힘과 권력이 이 경쟁의 세상에서 행복을 약속한다면, 예수는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행복을 구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지만—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길이 많이 있지만—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길(道)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흔히 대속(代贖) 교리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로 읽고 이해하는 일이다. “자기 목숨을—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주려 함이니라”(10:45)에서 ‘자기 목숨’은 ‘자신’을 말하는 관용어니, ‘자기 목숨을 주다’는 말은 ‘자신을 주다’, 곧 ‘자신을 걸다’, ‘내던지다’라는 표현과 같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위해 한 몸을 던진다는 문학적 표현이다. 생각뿐 아니라 몸으로 살아낸다는 말이다. 자기 목숨을 주되—스스로의 삶, 신학을 끝까지 살되—이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 곧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신했다는 말이다. 문법적으로 판단해도, 이 구절의 핵심은 섬기고 목숨을 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대신한 값/값”은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다(“to serve and to give his life—as a price/token in place of many”). 이런 표현 방식은 마가복음 저자의 독특한 문체로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두 단계 진행”(two-step progressions)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저물어, 해 질 때에”(1:32); “바깥, 한적한 곳”(1:45);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7:26);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12:44) 등이 있다. 두 번째 표현으로 뜻을 보다 분명히 한다.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예수도 남을 섬기되 그 일에 자신의 삶을 건다, 올인(all-in)한다는 뜻이다.

현실은 지배체제 하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데올로기)으로 온통 포장되어 있다. 지배문화와 신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만 제시하는 듯 하다. 가만히 있어 현실을 따르든지 혹은 벗어나든지. 현실에 적응함으로 부와 성공을 추구할 것인지 혹은 아예 경쟁을 포기하고 홀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쟁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와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는 이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런 혜택을 먼 미래의 시간과 장소로 투영해 버린다. 그러나 제 삼의 길이 있으니, 곧 예수가 보여 준 상생의 도리다. 도피가 아니라 참여다. 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얻는 것이다. 지배체제의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신학을 세우고 살아내는 것이다.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지배체제의 더러운 영을 내보내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길이다. 섬김의 신학, 곧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웃을 섬기는 삶은 지배신학이 가르치거나 추구하는 바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처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바다.

###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정권을 이어 받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예수가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그 좌우편에서 행세하기를 구했다(9:37). 두 제자들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매인 상태에서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기에 분내고 샘냈다(10:41). 동료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랐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세 명은 모두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베드로는 예수를 영광의 그리스도로 보고 그의 갈 길을 막았으며(8:32), 야고보와 요한 또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이어받을 것으로 여겼다. 예수는 작은 자와 함께 하기를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높은 자, 힘있는 자를 동경했다.

예수가 말한 잔과 세례는 예수가 당할 고난을 의미한다.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명한다(8:34). 두 제자는 예수의 잔과 세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알곳게도 예수의 좌우에 배치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강도”들이다(ληστίς, 14; 48; 15:27). 이 장면에서 우리는 흔히 복면하고 무기를 손에 든 은행강도를 연상하기 쉬운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부패한 사회를 심판하려고 일어난 의적(義賊)에 비유할 수 있다. (Richard A. Horsley and John S. Hanson, *Bandits, Prophets, and Messiahs: Popular Movements in the Time of Jesus*).

-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14:48)
-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15:27)

예수의 죄가 신성모독이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요 10:31-33). 형량과 처형은 죄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잡범은 잡범들끼리, 경제사범, 정치범, 그리고 사형수들을 격리해 둔다. 예수가 강도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의 죽음이 그만큼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는 말이 된다.

다시 돌아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영광(지배이데올로기)과 깨달음(예수의 복음) 사이에서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했다. 그들이 무지한 까닭이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지를 너희가 모른다(10:38). 자신이 원하는 것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의 가르침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 눈 뜸과 예수 살기

바디매오 소경 이야기는 벳새다의 소경 이야기와 한 짝을 이룬다. 벳새다의 소경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인데 마가복음의 신학적 의도에 따른 문학적 구성이다. 처음 소경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굳이 소경의 이름을 밝힌다. 참고로 마태복음에는 두 명의 소경이(20:29-34)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명의 소경이(18:35-43)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나온다. 소경의 이름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בְּרִי-טִמְאֵי)’란 표현에서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말이니 결국 같은 말을 두 번 쓴 셈이다. 디매오라는 이름은 헬라 문화권에서 흔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Plato, *Timaeus*), 유대 문화권에서는 그 발음이 부정함을 연상하는 히브리어 ‘더러움’(טָמֵא, unclean)을 뜻한다. 사사기 3:7-11 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Cushan-of double wickedness)이란 이름은 ‘악함’(רַעְיוֹן)을 강조한 저자의 뛰어난 상상력의 결과다. 바디매오(בְּרִי-טִמְאֵי, son of unclean)—더러운 이의 아들, 이런 이름도 있을까?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영이 있을 뿐이다. 지배체제의 영, 더러운 영에 쌓인, 그 영향 아래 물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더러운 이’라고 보고 저자가 지어준 마가복음 주인공 이름이다.

바디매오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삶과 태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앞을 못 보는 상황—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구걸할 뿐이다. 그는 길 가(παρὰ τὴν ὁδόν)에 앉아 있는데,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존재감이 없다(4:4, 15). 그런 상태에서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다(10:48). 마가복음의 신학에서 볼 때 이는 예수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12:35). 다만 한 푼 동냥을 위해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를 만난 후 바디매오는 일시적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자 한다. 자신이 구걸하게 된 원인을 돌이켜 깨달아 알기를 구한다. 마침내 그는 예수를 ‘선생’이라 부른다(10:51). 제자들이 예수를 호칭할 때 쓴 말이고,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부를 때 썼던 말이다(요 20:16). 예수를 만난 후 걸인이었던 바디매오는 걸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를 ‘길에서’ 좇는다. 걸옷은 옛 자신을 말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체제의 피해자, 남들이 자신을 보는 눈, 거기에 걸들여진 나를 벗어 버림을 뜻한다. 본래의 자신을 회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의 길에 들어선다. 이와 짝을 이루는 벳새다 소경 이야기에서 예수는 눈 뜬 사람에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8:26)고 말하는데, 이는 다시 구걸하지 말라는 말이 된다. 그런 상황, 체제 안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새롭게 벗어났으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 제 2 부를 마치면서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해 가르친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분리해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다. 주어진 삶의 현상이 어떻든 간에 내가 거기로부터 도피하거나 불평함으로 허송세월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해한다. 세상의 눈, 그 가치관으로 보았기에 처한 현실이 힘들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와 같다. 그러나 하느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십자가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이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섬김과 나눔으로 실현된다. 나와 남을 가르고 경계선을 세워 분리를 통해 다스리는 집권자들과는 달리,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섬김의 출발이다. 특별히 눈에 들지 않는 사람들, 힘 없는 어린 아이들을 큰 자처럼 섬기라고 가르친다. 나눔은 일시적 동정이 아니다. 재물뿐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달란트—재물, 건강, 지식, 능력—가 ‘위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나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여야 함을 가르친다.

제자도의 처음과 끝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해는 크리스천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꾸로 말해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은 아니다.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은 모두 당시 지배체제 하에서 최고 집권자, 곧 왕에서 붙였던 칭호다. 이를 본래 의미로 되돌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야 말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럴 때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난다. 세상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에서 하느님의 복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함은 예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고, 그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본받는다라는 말이다. 소경의 눈 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깨달음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함을 본다. 우리는 본래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데올로기, 세상의 복음)에 눈이 멀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냈다.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병어리의 모습이다. 깨달음은 오랜 시간을 두고 배움이나 수행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깨달음은 한 가지로 되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절실함의 정도에 따라, 시간이 걸릴 뿐이다. 첫 번째 소경은 천천히 눈을 뜬다. 두 번째 소경 바디매오는 단박에 눈을 뜬다. 깨닫는다. 두 경우 모두 눈 뜬 사람—깨달은 사람—은 옛날 자리로부터 벗어난다. 벧새다 소경에게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고, 바디매오는 길 위에서 예수를 좇는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 가치관이 바뀌면 생활도 바뀐다. 정체성과 생활 방식은 같이 간다.

### 생각해 보기

1.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들리지 않고, 또 말하기 거북한 것은?)
2.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 걸림돌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다시 읽기  
17. 제자도 3: 눈 뜸과 예수 살기 (10:32-52)

050914  
박원일